4. 정악

1) 궁중음악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궁중을 중심으로 생성, 변화된 음악의 총칭을 말한다. 원래 궁중음악은 고려 이전의 음악도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음악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궁중음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궁중음악은 독주, 독창, 중주보다는 합주지향적이고 악기편성에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의 구별과 쓰임이 정해져 있으나 민간음악에는 주로 향악기만 쓰인다. 궁중음악의 생성은 거의가 조선 초기 때 규모가 가장 컸으나 그 후로 새로운 음악이 창제된 바도 없고 연산군 이후에는 하향길로 접어들어 현재는 한정된 레퍼토리만 연주된다. 처음에는 노래, 기악, 춤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의 형태였으나 차차 기악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궁중음악을 음악의 스타일로 나누면 아악(雅樂), 당악(唐樂), 향악(鄕樂)으로 나눌 수 있겠다. 아악은 중국의 고대음악인데 특징은 황종궁(黃鐘宮)의 7음음계, 일자 일음식(syllabic style), 시작음과 종지음이 같고 모든 음의 끝을 치켜 올리는 점 등이다. 당악은 중국의 민간음악이고, 향악은 한국의 기존 음악을 편곡한 것인데 당악과 향악은 향당교주(鄕唐交奏)를 통해 그 특징이 섞여서 현재는 뚜렷한 구별을 할 수 없다. 궁중음악을 용도와 기능별로 나누면, 제례악, 연례악, 군례악으로 나눈다. 제례악은 천신(天神), 지신(地神), 인신(人神)의 제사에 쓰이는 음악인데, 조선 말기까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직(社稷), 농사신인 신농씨에게 제사 지내는 선농(先農), 양잠신인 서릉씨에게 제사 지내는 선잠(先蠶)에 따른 제사 음악이 있었으나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고, 현재는 공자 제사 음악인 문묘제례악(아악)과 종묘제례악만 남아 있고 경모궁제례악은 종묘제례악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다. 연례악은 제사를 제외한 여러 궁중의식과 연향(宴享)에 쓰이는 음악을 통틀어 말하는데 낙양춘, 보허자 따위의 당악과 수제천(정읍), 여민락 따위의 향악이 사용되었다. 군례악은 행악(행진곡) 계통의 음악으로 대취타, 취타, 군악, 별우조타령 등이 있다. 궁중음악의 음질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7음음계와 기존 음질서인 5음음계가 함께 쓰인다. 궁중음악은 음악의 속도(tempo)가 느린 것이 특징이고 그 리듬은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또 궁중음악이 추구하는 음악적 의미는 경건함과 장중함에 있고 긴장과 이완이나 정점(클라이막스)의 개념은 약화되고 있다. 궁중음악은 외래음악의 주체적수용과 예악(禮樂)이라는 이념이 전통음악의 역사적 전개에 중요한 관점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민간음악에 끼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유교의 형식주의와 작곡개념의 결여는 오히려 궁중음악의 바람직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그 한계점을 갖는다.

① 향악

■ 정읍(井邑)

궁중의식에서 사용하던 아명(雅名)으로는 <수제천(壽齊天)>이라 한다. 본래는 백제의 노래로 알려진 '정읍'을 노래하던 성악곡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궁중무용인 '무고(舞鼓)'의 반주 음악이었으나, 지금은 가사가 탈락되고 순수한 기악합주곡으로 전승된다. 지금은 처용무의 반주곡으로 쓰일 때도 있다.

■ 동동(動動)

고려 때부터 궁중무용인 아박무(牙拍舞)의 반주곡으로 쓰던 악곡으로, 본래는 고려속요로 알려진 '동동'을 노래하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관악합주곡으로만 연주된다. 전곡이 8장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악곡인데, 본래는 반복해서 연주된 것으로 보인다. 장단은 <정읍(井邑)>처럼 빠르기가 불규칙하다. 현재의 <동동>은 임종(林鐘) 음을 주음으로 삼고 있어서 흔히 '세가락(三指)정읍'이라고도 한다. 향피리,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박 등으로 편성되고,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쉬는 동안 나머지 선율악기가 선율을 이어가는 연음기법으로 되어 있다.

②당악

당악은 본래 중국에서 전래되어 온 궁중 속악이다. 현재 남아 전하는 당악은 <낙양춘>과 <보허자> 두 곡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궁중의 의식음악은 당악기와 향악기가 함께 편성되어 연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음악의 경우도 당악의 음악양식을 따라 연주된 곡이 많이 있다. 특히 '용비어천가'에 곡을 붙였던 <여민락> 계통 음악이 당악풍으로 연주되었는데, 이들 음악의 특징은 편종과 편경이 편성되며, 당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음악의 기준음인 황종(黃鐘)의 음높이가 아악이나 당악과 같이 서양음악의 (C)에 해당한다는 점 이다.

■ 낙양춘(洛陽春)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사악(詞樂)의 하나. 아명은 <기수영창지곡(其壽永昌之曲)>이다. 본래 노래로 부르던 사악이었으나, 기악곡으로만 전승되던 것을 최근에 복원하여 남녀혼성합창과 관악합주로 연주하기도 한다.

악곡의 형식은 후반부에서 전반부를 반복하되, 그 첫 구(句)를 환두(換頭)라 하여 전반부의 선율과 다르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A-B-C-B의 구조가 된다. 여기서 C는 환두가 되고, B를 환입이라 한다. 현재 연주되는 <낙양춘>은 첫머리부터 환두까지의 43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각 마루의 길이는 불규칙하다.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박 등으로 편성되며, 악곡의 음계는 7음계이다.

■ 보허자(步虛子)

고려 때 들어온 당악의 하나. 아명은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이다. 본래는 당악정재(唐樂呈才)의 하나인 <오양선(五羊仙)>을 추는 `도중에 부르던 창사(唱詞)였으나, 조

선 후기에는 대부분의 궁중정재에 반주음악으로 사용되었다.
본래 보허자의 노랫말은 전반부인 미전사(尾前詞)와 후반부인 미후사(尾後詞)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악(司樂)의 전형적인 환입형식이다. '보허자'가 도교(道敎)의 의식음악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다. <보허자>는 3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악보인 <속악원보> 수록 <보허자> 전7장 중에서 1,3,4장만을 전한 것이다.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박으로 편성되는데, 조선후기 궁중정재의 하나인 '장생보연지무(長生寶宴之舞)를 출 때 부르던 "천문해일선홍...(天門海日先紅...)의 가사를 붙여 남녀합창과 관악합주로 연주하기도 하는데, 이를 <수악절창사(隨樂節唱詞)>라 한다.

오늘날의 <보허자>는 관악기 중심으로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과, 현악기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두 가지가 남아 전하는데, 후자는 민간음악이므로 따로 다루기로 한다.

■ 여민락만(與民樂慢)

조선 세종 때 창제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노랫말로 삼아 부르던 여민락 계통 음악의 하나. 조선시대 궁중 의식에서 행악(行樂)으로 사용하였던 곳이다. 아명은 <경록무강지곡(景錄無疆之曲)>이며, 그 이름을 줄여서 <만(慢)>이라고도 한다. 현재 전하는 <여민락만>은 당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관악합주곡으로, 전 10장이며,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박으로 편성된다.

■ 본령(本令)

조선 세종 때 창제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노랫말로 삼아 부르던 여민락 계통 음악의 하나. 아명은 <태평춘지곡(太平春之曲)>이고, <여민락령(與民樂令)>줄여서 <영(令)>이라고도 하며, 이 곡의 변주곡인 <해령(解令)>이 파생된 이후에 구별하기 위하여 <본령(本令)>이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세종 이래로 궁중의식에서 행악(行樂) 및 연례악으로 사용되었다. <본령>은 당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음악으로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박으로 편성되며, 6음음계로 구성되었다. 현재 연주되는 <본령>의 리듬은 각 마루의 길이가 불규칙하다.

20세기 이후 <본령>은 다른 궁중음악과 마찬가지로 본래 지니고 있던 행악 및 의식음악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무대 연주용 음악으로 정착함에 따라 본래 사용되었던 방향 대신에 편종과 편경이 첨가 되었다.

■ 해 령 (解令)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례악(宴禮樂) 및 행악(行樂)으로 연주되던 악곡. 아명은 '서일화지

곡(瑞日和之曲)'이다. <해령>이란 이름은 <여민락령(與民樂令)>의 변주곡이란 뜻이다. 이 곡은 <본령>의 전32마루 중 제16마루까지를 변주한 곡이다. 그 변주방법은 원곡에 간음(間音)을 넣거나 앞뒤에 장식음을 붙여 길게 늘이고, <본령>에 비하여 느리게 연주한다.
악기편성은 편종, 편경, 당피리, 대금, 당적, 해금, 아쟁, 장구, 장구 등이며, 당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한다.
평조선법의 5음음계이나, 부분적으로 협종과 무역 음이 출현하여 7음음계를 이루기도 한다.
<해령>은 연음기법(連音技法)으로 연주된다.

③군악

■ 대 취 타(大吹打)
조선시대 어명을 전하던 선전관청(宣傳官廳)과 군대의 영문(營門)에 소속된 취타수(吹打手)들이 연주하던 행진곡의 일종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명(雅名)으로는 <무령지곡(武寧之曲)>이라 하며, 세칭 <구군악(舊軍樂)>이라고도 한다.
<대취타>의 악기편성은 시대와 의식의 규모에 따라 달랐으나, 현재는 유일한 선율악기인 태평소(太平請)를 비롯하여 나발(喇(囉)叭), 나각(螺角), 웅고(龍鼓), 징, 자바라(暗暗暇) 등으로 편성된다.
현재 연주되고 있는 <대취타>는 7장 구성이며, 집사(執事)의 구령에 의하여 음악을 시작하고 마친다. 집사가 일종의 지휘봉인 '등채'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다가, 오른손만으로 잡고 머리 위로 수평으로 쳐들고 "명금일하대취타(鳴金一下大吹打)하랍신다."고 호령하면 징을 친 다음 음악을 시작하고, 마칠 때는 같은 자세로 "허라금(鳴譯禁)"이라 호령하면 음악을 그친다.
연주의 복식은 전립(戰笠)에 누른빛의 황철릭을 입고, 남전대(藍據帶)를 가슴에 두른다.

2) 아악

좁은 뜻으로는 궁중에서 연주되던 양부악(兩部樂)의 하나로 좌방(左坊)에 속하는 음악을 아악이라 하여, 우방(右坊)에 속하는 향악·당악과 구별하여 쓴 말이고, 넓은 뜻으로는 민속악에 대한 궁중음악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좁은 뜻의 아악을 다루고자 한다. 아악은 원래 중국 고대의 음악으로 고려 중기 1116년(예종 11) 송나라에서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곧 태묘(太廟) 등의 제례악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왕실의 대중사(大中祀)에서 연주되었다. 그리고 아악이란 말은, 고려 이후 조선말까지는 중국계 정악(正樂)에 한하여 <아정(雅正)한 음악>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이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중국계 속악은 당악(唐樂), 한국의 전통적인 궁중음악은 향악(鄕樂) 또는

속악(俗樂)이란 이름으로 불러왔다. 아악이 연주되던 각종 의식 가운데 성균관의 석전(釋奠)에서만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서 <문묘제례악(문묘는 공자묘를 일컬음)>이 현존하는 유일한 아악이 되고 있다. 아악을, 도입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음악을 활발하게 수용하였다. 특히 한나라나 북망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고구려는 그러한 영향을 직접 받았고,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면 신라의 음악이 가장 민족색이 짙었다. 백제·신라·고구려의 음악은 중국의 수 나라와 당나라에 전해졌고, 또 삼한악(三韓樂)이라고 총칭되어 일본에도 전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아악이 처음으로 한국에 전해진 것은 고려 때였다. 1114년에 송나라에서 중국의 속악(궁정악)인 신악(新樂)의 악기·곡보 및 지결도(指訣圖)를 보내온데 이어, 1116년에는 다시 송나라에서 대성아악(大黑雅樂)을 보내 준 것이 아악 도입의 시초이다. 이때 들어온 대성아악기로는 등가악기(登歌樂器)에 편종(編鐘) 정성(正聲) 16개, 중성(中聲) 12개, 편경(編磬) 정성 16개, 중성 12개, 금(琴) 1현·3현·5현·7현·9현 각 2, 슬(瑟) 2, 지 정성·중성 각 2, 적 정성·중성 각 2, 소(簫) 정성·중성 각 2, 소생(巢笙) 정성·중성 각 2, 화생(和笙) 정성·중성 각 2, 훈(塤) 정성·중성 각 2, 박부 2, 축 1, 어 1, 휘번(麾幡 ; 악기가 아님) 1이 있었다. 현가악기(軒架樂器)로는 편종 9틀(정성 16매·중성 12매), 편경 9틀 (정성 16매·중성 12매), 금 1현 5, 3현 13, 5현 13, 7현 16, 9현 16, 슬42, 지(정성·중성 각 24), 적(정성·중성 각 24), 소(정성·중성 각 22), 소생(정성·중성 각 21), 우생 정성·중성 각 16, 훈(정성·중성 각 14), 진고(晉鼓) 1, 입고(立鼓) 2, 비고 1, 응고(應鼓) 1, 축 1, 어 1, 휘번(악기가 아님) 1이 있었다. 이러한 아악기와 함께 아악에 쓰이는 문무(丈舞)의 약과 적(翟), 무무(武舞)의 간(干)과(戈) 각각 36벌과 의관·무의·악복·의물(儀物) 등 아악 연주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온 대성아악을 예종 11년 6월, 왕이 회경전(會慶殿)에서 중신(重臣)들을 불러 모아 함께 관람하였고, 그 해 10월 건덕전(乾德殿)에서 또한 번 보고 태묘에 이 음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하여 그 후 이 대성아악은 원구(圓丘)·사직(社稷)·태묘·선농(先農)·선잠(先蠶) 및 문선왕묘(文宣王廟; 공자묘) 등의 갖가지 제사와 그 밖의 연향음악(宴饗音樂)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고려 예증에서 의종(毅宗) 때에 걸친 시기에는, 송에서 도입된 대성아악이 비교적 본 모습으로 사용되었으나, 고려 명종(明宗) 때부터 조선 세종(世宗) 초에 걸친 시기에는 악기와 악식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아악의 본 모습을 잃어갔다. 즉, 송나라에서 의관과 악기만 보내왔으므로, 음악과 춤이 모두 맞지 않고, 더욱이 노래를 부르는 악사는 가사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악보의 높낮이 만 욀 뿐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188년(고려 명종 18)에는 도피한 악공과 전업한 악공들을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제례 초헌(初獻)에는 아악을 쓰고,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는 향악을 쓰도록 하였다. 이렇듯 문란해진 아악은 간혹 있은 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히지 않은 채 고려 말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초기의 아악은 1406년(태종 6) 명(明)나라에서 아악기 일부를 들여왔을 뿐 고려시대 말기의 아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1425년(세종 7) 경기도 남양(南陽)에서 질이 좋은 경석(磬石)이 발견된 뒤부터 아악의 재정리사업

이 시작되었다. 세종 때는 건국 초의 혼란이 안정되어 문물 정비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아악을 독자적으로 복원하여 그 용도가 사회에까지 확대된 시기로서, 아악도 융성하였다. 박연(朴堧)을 중심으로 남급(南汲)·정양(鄭穰) 등이 중국의 문헌을 참고하여 악리(樂理)를 정리하고, 또 아악기를 새로 만들었으며, 아악보를 발간하여 각종 의식에 사용할 아악을 제정하였다. 먼저 악기 제작을 보면, 1423년부터 1436년까지 제작한 아악기·향악기·당악기만도 20여 종에 200을 셀 수 있는데, 특히 편경과 편종의 제작에 힘을 기울였고, 서울 마포 강변에 주종소(鑄鐘所)를 두어 편종과 특종을 만들었다. 아악곡의 정리에서, 회례악(會禮樂)은 가사만 새로 지어 곡조는 송나라 주회(朱熹)의 《의례경전통해시악(儀禮經傳通解誇樂)》에서 가져다 썼으며, 제례악(祭禮樂)은 이제까지의 이론 에 맞지 않는 용악법(用樂法)을 고침과 아울러 원나라 임우(林宇)의 《 대성악보(大晟樂譜)》에 의거하여, 일부를 그대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서 문선왕묘의 제례악인 《응안지악(濃安之樂) 》은 세종 이후 현재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전하는 유일한 중국계 아악곡 중의 하나이다. 악서의 간행을 보면, 1425년에 향악·당악·아악의 율조와 악기 보법 등에 관한 책을 만들어 올리게 하고, 이 것을 예조(禮曺)·봉상시(奉常寺)·악학(樂學)·관습도감(慣習都監)·아악서(雅樂署)에 각 1질색 보관하게 하였다. 또 아악보로는 《석전악보(釋奠樂譜)》 《아악보(雅樂譜)》 등을 간행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아악이 재정비되고 완비되었으나, 유신(儒臣)들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우리의 전통을 아껴야 한다는 세종의 정신과는 달리 종묘제향(宗廟祭享)까지 중국식 아악 일색으로 바뀌자, 1464년(세조 10)에는 세종 어제(御製)인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犬業)》 을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했는데, 그때까지는 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제정되었던 중국계 아악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 때에 완비 된 아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즉 세종 때에 정비되어 융성했던 아악은 당악과 더불어 연산군(燕山君) 때의 탄압과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크게 쇠퇴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조(仁祖) 이후 숙종(肅宗)·영조(英祖)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아악의 정비에 주력했다. 그러나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해 왔는데, 그나마 1910년에 원구·사직·선농·선잠·산천(山川) 등 제향의 폐지와 아울러 자취를 감추게 되고, 종묘제례악·문표제례악만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8·15 후 아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을 통틀어 <국악>이라고 하여 그 보호 육성을 위하여 1951년 이왕가(李王家)에 속해 있던 아악부(雅樂部)를 모체로 해 국립국악원이 발족하였다.

1950년대부터는 대학에서도 국악연구가 활발해지고, 아악은 문묘·종묘의 제례 등, 본래의 전통적인 행사에서 연주되는 외에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른 민속 음악과 더불어 교습되고 있다.

1) 문묘제례악

문묘(文廟)는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준말로, 문선왕인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자· 증자·맹자 등과 우리나라 유학자로서 학덕(學德)이 높은 설총, 최치원 등을 모신 사당이다.

문묘제례악은 한국과 중국에 남아 있는 음악 가운데 가장 옛 형태에 속한다.
중국 고대 음악에 속하는 아악곡의 일종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중국의 아악이 들어온 것은 고려 예종 11년이다. 이때 들어온 것이 대성아악(犬晨雅樂)인데, 이 대성아악은 그 뒤 원구·사직·태묘·선잠·문묘악 등의 제례와 연향음악에 쓰였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곡은 세종때 박연이 중국 원 나라의 임우가 쓴 『대성악보』 에 의거하여 만든 것인데 박연은 주례(周禮)와 가장 가깝게 썼다는 이 『대성악보』 도 믿기 어렵다 하여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 수록된 16곡 중에서 영신 황종궁과 송신 황종궁 2곡만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만든 악보가 『악학궤범』 에 전하고 현재도 『악학궤범』 소재의 문묘악 악보대로 연주되고 있다.
문묘악은 아악의 특색인 등가(登歌)와 헌가(軒架)를 갖추고 있는데 등가는 음려의 남려궁을 사용하고, 대뜰 위에 편경, 편종, 특경, 특종, 금, 슬, 노래 등으로 편성된다. 헌가는 양률의 고선궁을 사용하고, 대뜰 아래에 관악기· 타악기 위주로 편성된다. 아악은 그 사용 악기에 있어 팔음을 구비하여야 한다. 팔음이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여덟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2)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조선시대 역대 제왕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종묘(宗廟)의 제례 의식에서 연주 하는 음악. 기악과 노래로 구성되며 의식무용인 일무(佾舞)가 따른다. 종묘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음악을 제향에 사용하기는 고려 때 부터이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았으나, 태조 4년(1395 년) 11월, 종묘의 악장(樂章)을 새롭게 고쳤다.

《세종실록》 권138에 의하면, 세종이 고취악(鼓吹樂)과 향악에 바탕을 두고 <정대업(定犬業)>, <보태평(保太平)>, <발상(發祥)>, <봉래의(鳳來儀)> 등 신악(新樂)을 창제하였다 한다. 그 중 <정대업>과 <보태평>은 세종 29년(1447 년) 회례악무(會禮樂舞)로 창제되었는데, <정대업>은 15곡, <보태평>은 11곡 이었다. 그러나 세조 6년(1460년) 가사를 새로 짓게 함으로써 <보태평>은 11 곡(희문, 기명, 귀인, 형가, 즙령, 융화, 현미, 용광정명, 중 광, 대유, 역성)을 그대로 두고, <정대업>은 15곡에서 11곡(고무, 독경, 탁정, 선위, 신정, 분응, 순응, 총유, 정세, 혁정, 영관)으로 축소하였다. 이후 세조 10년(1464년)부터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 이후인 인조 3년(1625년)에 <보태평>의 용광(龍光)과 정명(貞明) 두 곡을 합쳐 용광정명(龍光貞明) 한 곡으로 한 다음, 중광(重光)을 첨가하였다.

회례악으로 처음 창제된 세종 때의 <정대업>과 <보태평>은 《세종실록》 권138에, 축소되어 종묘제례악으로 채택한 음악은 《세조실록》 권48에, 인조 이후 변화된 음악은 《대악후보(犬樂後譜)》 권2와 《속악원보(俗樂源譜)》 인편(仁篇), 신편(信篇)에 악보가 전한다.

현재의 종묘제례악 연주에는 일무(佾舞)라는 무용이 반드시 수반된다. 여럿이 줄을 맞

추어 춘다는 뜻에서 '일무'라 하는데, 일무에는 문덕(支德)을 찬양한 문무(文舞)와 무공(武功)을 찬양한 무무(武舞)가 있다. 현재의 일무는 팔일무(八佾舞)를 사용하는데, 팔일무란 64명의 무인(舞人) 가로 세로 여덟 줄로 늘어 서서 추는 춤이다. 문무를 출 때는 왼손에 약(崙), 오른손에 적(翟)을 들고 추며, 무무를 출 때는 앞 4줄은 목검(木劒), 뒤 4줄은 목창(木槍)을 들고 춘다.

무인의 복식은 문무와 무무 모두 복두(幞頭), 홍주의(紅綢衣), 남사대(藍絲帶), 목화(木靴)를 착용한다